

# 인구 감소·고령화에 광주 신혼부부 수 전국 최하위

### 지난해 11월 기준 신혼부부 총 103만 2000쌍...역대 최저치 갱신 광주 2만7708쌍 전년비 6.4% 감소...울산 이어 광역시 중 두번째

인구유출과 고령화가 심각한 광주와 전남에서 결혼하는 이들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는 전년보다 신혼부부 수가 줄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었다. 전국 신혼부부 수가 역대 최저치를 갱신한 가운데, 신혼부부 2쌍 중 1쌍은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신혼부부(결혼 5년차 이하)는 총 103만 2000쌍으로 조사됐다. 광주시의 경우 신혼부부 수가 전년(2만9569쌍) 대비 6.4% 감소한 2만7708쌍(2.7%)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신혼부부 수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7%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4번째로 적었다. 광주는 세종(1.1%), 제주(1.4%), 울산(2.2%)에 이어 적은 도시로 꼽혔고, 광역시 가운데서는 두번째로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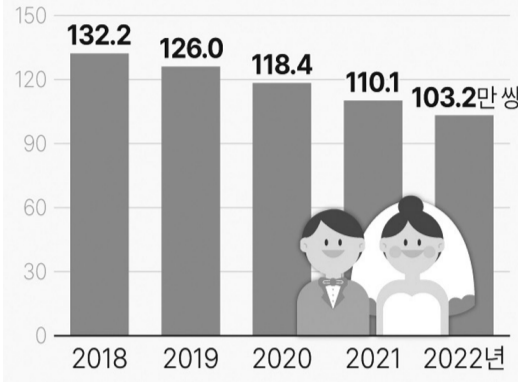
전남의 경우 3만1640쌍(3.1%)으로 전년(3만 3351쌍)에 견줘 5.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신혼부부 수는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다. 신혼부부 수는 매년 발표 때마다 최저치를 갈아치우면서 인구소멸 위기를 실감케하고 있다 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전국 신혼부부는 103만 2000쌍. 전년(110만 1000쌍)에 견줘 6만 9000쌍(6.3%) 감소했다. 전국 신혼부부 수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2015년 147만 2000쌍을 시작으로, 2016년·143만 7000쌍→2017년·138만쌍→2018년·132만 2000쌍→2019년·126만쌍→2020년·118만 4000쌍→2021년·110만1000쌍 등 매년 큰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신혼부부 수는 결혼한 부부와 이혼한 부부를 합해 통계를 작성되는데, 매년 탄생하는 신혼부부 수

## 신혼부부 수 추이

매년 11월 1일 기준 혼인신고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고 국내에 거주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



도 줄어들고 있었다. 연차별로 살펴보면 5년차 부부가 23만 2506쌍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4년차 22만 1351쌍, 3년차 20만 4883쌍, 2년차 18만 7683쌍, 1년차 18만 5830쌍 등 순이었다.

## 초혼부부 자녀 유무 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 연말뉴스

지난해 신혼부부 10쌍 중 2쌍은 재혼 부부였다. 초혼(初婚)은 81만5000쌍(79.0%), 재혼(再婚)은 21만4000쌍(20.7%)으로 조사됐다. 재혼 비중은 2015년 19.9%에서 지난해 20.7%까지 높아졌다.

초혼 신혼부부를 기준으로, 자녀가 없는 부부는 46.4%로 전년(45.8%)보다 0.6%포인트 증가하면서 2015년 통계작성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평균 자녀 수도 0.01명 줄어든 0.65명으로 역대 가장 낮았다.

결혼하는 이들도 줄어들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하지 않는 현상은 청년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초혼 신혼부부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금융권 대출은 늘었고, 주택보유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신혼부부 중 89%가 대출 잔액을 보유하고 있었고, 신혼부부의 대출잔액(중양값)은 1억 6417만원으로 전년에 견줘 7.3% 증가했다.

특히 대출잔액이 2~3억원인 신혼부부가 20.0%, 3억원 이상인 경우는 20.2%로 대출잔액 2억 이상인 신혼부부가 전체의 40.2%에 달했다.

주택을 보유한 신혼부부 비중은 40.5%로 전년(42.0%)보다 1.5%포인트 감소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광주은행서 추위 피하세요”...내년 2월까지 한겨울 쉼터 운영

### 모든 영업점서 핫팩 무료 제공

광주은행이 겨울을 맞아 지역민의 추위를 녹여줄 ‘한겨울 쉼터’를 운영한다. <사진> 광주은행은 무더운 여름 지역민의 더위 피난처 역할을 했던 ‘무더위 쉼터’에 이어 올해도 역시 취약계층과 고령층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한 ‘한겨울 쉼터’의 문을 열었다.

광주은행은 내년 2월까지 광주와 전남, 수도권 등 광주은행 128개 모든 영업점에서 ‘한겨울 쉼터’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은행 ‘한겨울 쉼터’는 은행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영업점 운영시간 내라면 누구나 추위를 피해 방문 가능하며, 내방 고객에게는 휴대용 핫팩을 무료로 제공한다.

광주은행은 지난 2018년부터 한겨울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같은 해 은행권 최초로 ‘무더위 쉼터’의 문을 연 광주은행은 겨울을 맞아 한겨울 쉼터를 열고 고객과 지역민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해 오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



## 효성첨단소재, 지속가능경영 지표 ‘DJSI 코리아’ 편입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25.36 (+7.51)
↑ 코스닥	835.25 (+4.88)
↑ 금리(국고채 3년)	3.480 (+0.019)
↑ 환율(USD)	1316.50 (+9.70)

효성첨단소재는 '2023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DJSI) 코리아'에 최초로 편입됐다고 11일 밝혔다.

DJSI는 세계 최대 금융정보 기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지표다.

효성첨단소재는 2023 DJSI 코리아 평가에서 ▲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 친환경 제품 개발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노력 ▲ 지속가능경영 조직 신설 및 강화 ▲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조용수 효성첨단소재 대표이사는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새로운 가치 창출 기회로 인식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더와이, 전주시 우아동3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우아동3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예상 조감도.

영무건설의 시공 협력사인 ㈜더와이는 총 사업 1884억원 규모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더와이는 우아동3가 가로주택정비사업 4개 블록(730-1번지 일원·728-1번지 일원·726-1 일원·731-1일원) 총 509세대를 영무건설 YEDAUM(에다움) 브랜드로 단독 시공한다. ㈜더와이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블록별로 우아동 3가 730-1번지 일원(지하 2층~지상 12층) 총 115세대, 728-1번지 일원(지하 2층~지상 12층) 총 115세대, 726-1 일원(지하 2층~

지상 12층) 총 134세대, 731-1일원(지하 2층~지상 36층) 총 145세대 등 공동주택과 부대복리 시설 등으로 탈바꿈한다.

㈜더와이 관계자는 “우아동3가 내에서 진행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4개 블록 시공권을 일괄 확보해 의미가 큰 사업”이라며 “사업 방식 상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지만 4개 블록을 일괄 개발함으로써 지역 개발의 큰 변화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더와이는 안전한 신용등급(BBB+)과 풍부한 경험, 원활한 사업 진행을 바탕으로, 도시정비사업 수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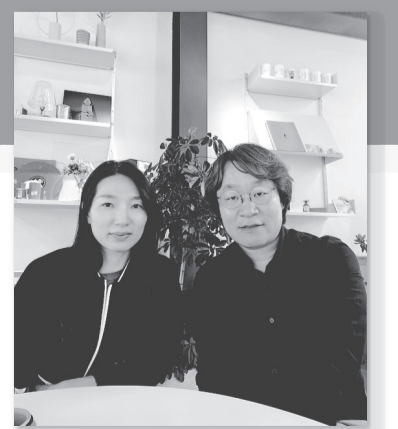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